

22대 첫 정기국회... 지역의원들 현안 챙기기 '분주'

내달 2일 개회...“지역민 열망 부응”
국비 추가 확보·군 공항 이전 집중
“시·도와 긴밀한 협력, 성과 낼 것”
농·어·축산업 종사자 권익보호 노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제22대 첫 정기국회 준비로 분주하다.

지역 의원들은 ‘100일 간의 대장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국고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하며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6월 개원 후 여야간 끝없는 정쟁으로 국민 혼란과 피로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시·도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4일과 5일 양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6일 열린다. 이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지역 이슈는 단연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9월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가 열리는 만큼, 지역 의원들의 관심도 뜨겁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예산 등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 개항)이 올해 정부로부터 전년보다 93.3% 늘어난 30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 계획이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짚고 필요하

면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동남구갑)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힘을 수 있도록 예

산·법 분석 등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군공항 이전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서구을·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역 의원 중 국방위 소속이 없다. 군 공항 이전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현안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전체 의원이 합심해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며 “광주시·전남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 내용을 국방위 소속 동료 의원들에 전달하는 등 도움을 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광산구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더불어 필요 시 문체부·광주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과 함께 ‘3자 상황점검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AI광주’ 산업 육성 △에너지 선도도시 △미래차 도시 등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국정브리핑... ‘4+1’ 개혁 청사진
“지역·필수의료 5년간 10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

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 수치가 담긴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내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

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

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신설을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을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인원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